3월중 '피부물가' 6.72% 올라

주거비 뺀 라면·배추등 주요 생필품 급등

새 정부 관리 목표치보다 두배 이상 높아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별도로 계산한 3월 '피부물가지수' 상승률은 6.72%나 돼 정부의 올해 물가관리 목표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지수를 별도로 만들어 보라는 지시에 의해 구성된 이른바 MB지수에서 변동치가 크지 않은 주거비(전월세가격)를 뺀 수치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가중치가 높은 52개 품목의 3월 'MB 물가지수'는 111.01로 지난해 3월의 104.94에 비해 5.7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전월세(주거비)로 3월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2.0%에 그쳤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월세 가격상승률은 특정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단지 전체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계약을 새로 한 가구만을 오른 것으로 계산해서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데는 상당한 시차를 보인다.

정부에서 이른바 MB지수에 전월세 가격을 포함시켜 52개 품목을 선정했으면서도 지수로 작성해 공식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전월세 가격이 피부로 느껴지는 전월세 가격 동향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계의 정합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피부물가를 반영하는데 시간차가 큰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51개 품목만 계산할 경우 물가지수는 112.89로 지난해 같은 달의 105.78에 비해 6.7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489개 품목을 모두 포함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2개 품목에 대해 지수를 만들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이 품목에 대한 물가상승률 지수를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면서 "다만 2월치 자료로 시범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52개 품목을 모두 합하면 5%대 초반, 주거비를 빼면 6% 내외였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피부 물가'는 2월에 비해 3월에 더욱 큰 폭으로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작년 3월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공업제품 중에서는 금반지(52.3%), 경유(26.9%), 자동차용 LPG(22%), 등유(20.6%), 휘발유(14.7%), 라면(21.1%) 등이며 농축수산물에서는 파(134.5%), 배추(60.8%), 감자(43.4%), 풋고추(29.6%), 달걀(27.7%) 등이다.

한편 3일 농협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골프공 직접 시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열린 '2008 한국골프종합전시회(KOGOLF 2008)'를 찾은 관람객들이 시타를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그룹 재계순위 약진 '눈에띄네'

올해 63위 랭크 … 공정위, 기업집단 첫 지정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이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순위 1위를 유지했다. 삼성은 계열사 59개, 자산총액 14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한전은 계열사 12개, 자산총액 112조6천억원으로 2위, 현대자동차는 계열사 36개, 자산총액 74조원으로 3위였다. 이어 SK(64개, 72조원), LG(36개, 57조1천억원), 대한주택공사(2개, 51조1천억원), 롯데(46개, 43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 (4개, 38조8천억원), 포스코(31개, 43조7천억원), 한국토지공사(3개, 33조6천억원) 등이 각각 4~10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기업집단을 포함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1천680개사)을 올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 가운데 대주건설이 유일하게 계열사 20개와 자산총액 2조9천억원으로 63위에 올랐다.

또 광주·전남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는 금호아시아나(14위, 계열사수 52개, 자산총액 26조7천억원), 이랜드(39위, 19개, 5조2천억원), 미래에셋(52위, 21개, 3조4천억원), 유진(56위, 42개, 3조1천억원), 프라임(66위, 43개, 2조6천억원), 씨앤(71위, 29개, 2조3천억원) 등이 79위 안에 포함됐다.

■2008년 기업집단 현황

(단위:조원)

순위	기업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1	삼성	59	144.4
2	한국전력공사	12	112.6
3	현대자동차	36	74.0
4	에스케이	64	72.0
5	엘지	36	57.1
6	대한주택공사	2	51.1
7	롯데	46	43.7
8	한국도로공사	4	38.8
9	포스코	31	38.5
10	한국토지공사	3	33.6
11	지에스	57	31.1
12	현대중공업	9	30.1
13	케이티	29	27.1
14	금호아시아나	52	26.7
15	한진	27	26.3
16	한화	40	20.6
17	두산	21	17.0
18	하이닉스	8	15.0
19	한국철도공사	15	14.5
20	한국가스공사	3	12.7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 출총제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에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도 41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돼 38개 집단은 2개월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장·국장·부장등 직급 명칭 안써요

한국 바스프 여수공장

한국 바스프가 회사내 직급에 대한 호칭(코리안타이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3일 한국 바스프 여수공장에 따르면 바스프는 지난 1일부터 사내에서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직급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석유화학제품 업체 바스프의 한국법인 한국 바스프는 일명 코리안타이틀로 불리는 직급에 대한 호칭이 사내에 권위주의 문화를 양산하고 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서울본사와 여수공장에서 직급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진욱 회장은 "앞으로 나를 회장님으로 부르지 말고 내 이름 영문 이니셜인 C.W로 불러달라"고 당부했고, 임직원들도 조만간 자신의 호칭을 정해 사내에서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BBQ치킨, 美 시장 본격 공략

현지지점 잇단 개설 … KFC에 도전장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치킨(회장 윤홍근·사진)이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미국의 KFC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BBQ치킨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에서 직영 1호점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LA지점을 동시에 개장하고 이달 1일 뉴욕 맨해튼 지점을 잇따라 열며 본격적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BBQ치킨은 미국 진출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0개월 동안 시장조사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오면서 지난해 11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시범점포를 운영, 현지인들의 성향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왔다.

BBQ치킨은 이번 LA와 뉴욕 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새크라멘토, 워싱턴주 시애틀, 뉴저지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리노이주 시카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 모두 20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BBQ치킨은 미국의 주요 상권에는 넓은 매장과 다양한 메뉴를 갖춘 레스토랑형 매장을, 주택가와 대학가에는 테이크 아웃과 배달 중심의 매장을 설립해 미국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레스토랑의 중간개념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CDR) 형태의 매장은 메인 음식인 닭요리와 함께 볶음밥·샐러드·떡볶이 등 사이드 메뉴까지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중 '내수진작' 방안 나온다

하반기 성장률 3%대 급랭 가능성 높아

정부 "규제완화·감세 등 투자·소비 진작"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에 미달하는 5%대 후반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악화된 외부여건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1분기를 정점으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6%에는 미달하는 5%대 후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도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1.4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작년도 성장률은 연간 5.0%였으며 분기별로는 1·4분기 4.0%, 2·4분기 4.9%, 3·4분기 5.1%, 4·4분기 5.7% 등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1·4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강기로 돌입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일으켜 경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재정투입 보다는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 감세조치 등을 통해 민간의 기업활동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유의 亂' … 휘발유보다 비싸지나

국제 시세 3월 하반기 폭등 … 경유차 이용자들 비상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인 국제시세에서 경유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휘발유 시세는 한풀 꺾이면서 4월 상반기중 국내에서 두 제품의 가격역전이 실제로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초유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시세를 2~3주의 차이를 두고 따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석유공사가 발표한 마지막 시세인 3월 넷째주 시세는 3월 첫째주와 둘째주의 가격을 반영해 설정됐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유시세는 3월 하반기 폭등세를 연출했다. 국제 경유가격(싱가포르 시장)은 3월 셋째주 배럴당 132.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넷째주에는 130.58달러로 소폭 내렸으나 4월 첫째주 배럴당 131.80달러로 반등하며 다시 고점에 근접한 상태다.

이렇게 폭등한 국제시세는 아직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전이지만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가격은 3월 넷째주 ℓ당 59.61원이나 오른 1천548.76원으로, ℓ당 1천677.82원인 휘발유 가격의 92.3% 수준까지 이미 상승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 가격은 경유가 배럴당 121.90달러였던 3월 첫째주와 둘째주 국제시세가 반영된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시세의 상승에 (국내가격 상승요인인) 환율의 급등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통위원 3명 임명

여수 출신 김대식씨 등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여수출신인 김대식 중앙대 교수(사진)와 강명헌 단국대 교수, 최도성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 위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등 당연직 2명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추천직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김대식 위원은 여수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부총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최고의 재테크, 나에게 투자를

꾸준한 자기계발로 몸값 올려라

급여 만큼 소중한 자산도 없어

은퇴 후 평생직업 미리 준비를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국민이 재테크에 열중이다. 직장인들 중에 펀드 계좌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이 없고, 수도권지역 부동산 경매시장은 정권교체 이후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재테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본업에는 충실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재테크가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급여를 올리는 것에는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만약 내가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는 은행 예금 금리가 5%일 때, 이자소득세를 감안한다면 8억5천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의 이자소득과 같다.

매월 300만원을 잘 운용하여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능력계발에 투자하여 급여를 월 400만원으로 올린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11억5천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의 이자소득과 같아진다.

3억원이라는 돈을 월급을 통해 모으기는 어렵지만, 나의 능력을 잘 계발할 경우 3억원의 자산을 모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능력계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대박을 꿈꾸기 일쑤다. 현재의 급여에 불만은 있지만, 평소에 급여를 올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절대 투자금액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가고 자녀가 커갈수록 자기계발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모 아니면 도' 식의 리스크가 큰 자산에 자신의 전재산을 올인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계발은 평생직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노화 관련 학회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혹은 150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 현재의 정년제는 폐지되고,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평생 동안 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재무 상담을 해보면 단편적인 금융 및 부동산 지식은 있어도 자기 자신이 향후에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 이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를 해야 할 상황에서 '평생 운전병에게 기대어 운전대 잡는 것조차 서툰 장성 출신의 군인' 처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데 열중한다. 재테크를 통해 전체 자산을 불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를 올려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사람도 드물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다"는 수능 수석들 말처럼 꾸준히 자기계발을 해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